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사용 확산의 지역별 현황*

-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

고 영 우**

본고에서는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지역별로 상당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패턴이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 산업구조 및 도시·농어촌 구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외식업종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 또는 규제 등을 마련할 때, 이러한 산업별, 지역별 특성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더 나아가 배달원의 고용보호와 관련해서도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정책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 머리말

201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음식 배달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음식주문중개앱이 확산되면서 주문은 주문중개앱을 통해, 조리된 음식의 배달은 배달대행 앱을 통해 이뤄짐으로써 음식 배달 서비스가 분화되었다(김영아 외, 2020). 그뿐만 아니라, 배달앱의 사용으로 기존에 음식을 배달하지 않던 비배달음식점업도 배달대행 앱을 통해 배달이 가능해지면서 음식 배달 시장 전체의 규모가 커졌다(김영아·이승호, 2019). 이러한 현상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식이 어려워지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글은 김영아·고영우·방도형(2020), 『배달앱 사용 확산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음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의 제3장 내용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ywko@kli.re.kr).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이러한 음식 배달 서비스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과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예컨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또는 농어촌 지역)별로 외식업 분야의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음식 배달 서비스 분야의 변화 영향도 지역별로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역 특성은 개인이 음식 자영업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병유, 2003)일 뿐 아니라, 자영업 생존 기간(권우현 외, 2013)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역 간에 음식 자영업자의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앱 활용 형태가 다를 뿐 아니라, 배달앱 활용이 음식사업장의 종업원 및 배달원 고용 변화에 미친 영향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영아 외, 2020).

이에 본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외식업체가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를 지역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 단위에서 외식업체가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턴과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¹⁾ 구체적으로,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사용 비중의 변화, 사용 비중이 높은 세부 음식업 분야, 상업지역에서의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이들의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외식업 분야 주문중개앱 · 배달대행 사용 현황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외식업체 중 11.2%가 주문중개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7.6%)보다 약 3.6%p 증가한 수치이다. 일반음식점 외식업체 중에서는 9.4%가 주문중개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37.2%)의 주문중개앱 이용 비중이 높고, 한식(6.9%)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주문중개앱 이용 비중은 13.1%로 나타났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치킨전문점(57.4%)과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5.2%)의 주문중개앱 이용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남권(13.7%)과 강원경북권(11.7%)의 주문중개앱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9.7%)의 이용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격차는 지역별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배달대행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019년에 10.0%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1) 본고에서 지역을 다음과 같이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서울(서울), 경인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제주권(광주/전북/전남/제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경북권(대구/강원/경북).

8.9%는 배달대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18.9%)과 일식(13.0%)의 배달대행 이용 업체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배달대행 이용 비중은 11.2%로 조사되었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49.4%)과 치킨전문점(49.2%)의 배달대행 이용 업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표 1〉 사업장 특성별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비중

(단위 : %)

			2018		2019		
			주문중개앱 이용 비중	배달대행 이용 비중	주문중개앱 이용 비중	배달대행 이용 비중	
전 체			7.6	5.4	11.2	10.0	
업종	일반 음식점	소 계	6.2	4.0	9.4	8.9	
		한식	5.3	3.6	6.9	8.0	
		중식	18.7	8.3	37.2	18.9	
		일식	3.1	2.9	15.7	13.0	
		서양식	6.7	5.8	12.2	8.6	
		기타 외국식	4.3	3.2	8.0	5.2	
	일반 음식점 외	소 계	9.3	7.0	13.1	11.2	
		기관 구내식당업	-	-	-	-	
		출장·이동음식점업	-	1.5	-	-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업	1.5	1.9	1.6	2.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43.1	38.2	55.2	49.4
			치킨전문점	45.5	31.8	57.4	49.2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6.4	4.7	7.3	6.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1.7	0.7	10.0	6.4	
		주점업	2.2	1.9	2.0	1.8	
		비알코올 음료점업	2.5	1.3	6.6	4.3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24.5	17.6	28.9	24.8
비프랜차이즈	4.6		3.2	6.7	6.2		
지역	서울	5.6	1.9	9.7	7.0		
	경인권	8.8	4.5	10.9	10.2		
	충청권	6.6	6.7	10.2	7.1		
	호남제주권	4.3	3.4	10.1	10.6		
	동남권	8.7	10.1	13.7	12.4		
	강원경북권	10.3	6.3	11.7	11.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KOSIS).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남권(12.4%)의 배달대행 이용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의 이용비중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역별로 증가 경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든 주문중개앱과 배달대행 서비스의 이용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호남제주권에서 이용비중의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권과 강원경북권은 상대적으로 배달대행 서비스의 이용비중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충청권과 동남권에서는 배달대행 서비스보다 주문중개앱의 이용비중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의 이용비중의 증가패턴이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바, 지역별 이용비중의 변화가 외식업체 업종별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외식업체 업종별 주문중개앱 서비스 이용 비중을 지역별로 비교해 살펴보면(표 2 참조), 한식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서비스 이용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호남제주권(2018년 0.8% → 2019년 7.7%)과 동남권(2018년 9.2% → 2019년 12.4%)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충청권(2018년 3.9% → 2019년 0.7%)과 강원경북권(2018년 6.5% → 2019년 2.9%)에서는 그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주문중개앱 서비스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이 중식인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8년 대비 2019년 이용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강원경북권(2018년 19.6% → 2019년 19.1%)에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주문중개앱 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2018년 대비 2019년에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일식 분야에서는 서울 지역에 주문중개앱 서비스 이용 업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적으로 주문중개앱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치킨전문점이고, 서울과 경인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이용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2018년 대비 증가 정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북권(2018년 60.2% → 2019년 38.5%)에서는 오히려 주문중개앱 이용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의 경우에도 주문중개앱 서비스 이용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치킨전문점과는 달리 충청권 및 호남제주권에서의 이용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2018년 대비 증가 정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체 업종별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표 3 참조), 전반적으로 주문중개앱 이용 비중과 경향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중식의 경우 강원경북권에서는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치킨전문점의 경우에는 강원경북권(2018년 52.3% → 2019년 29.7%)과 더불어 충청권에서도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비중이 2018년에 비해 많이 감소(2018년 33.2% → 2019년 19.0%)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식업체들의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표 4 참조), 한식업체 및 치킨전문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표 2〉 외식업체 업종별·지역별 주문중개앱 서비스 이용 비중

(단위: %)

		전 체	서울	경인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강원경북권
한식	2018	5.3	4.0	5.3	3.9	0.8	9.2	6.5
	2019	6.9	5.0	6.4	0.7	7.7	12.4	2.9
중식	2018	18.7	31.0	10.8	20.5	10.7	20.6	19.6
	2019	37.2	44.4	22.9	44.3	33.7	48.6	19.1
일식	2018	3.1	-	3.1	14.1	5.4	-	11.2
	2019	15.7	-	15.4	66.2	11.2	10.2	30.9
서양식	2018	6.7	4.9	7.9	11.0	11.1	11.1	-
	2019	12.2	5.1	31.3	16.1	14.7	16.0	14.0
기타 외국식	2018	4.3	5.7	-	13.2	-	-	19.9
	2019	8.0	2.6	9.5	6.0	-	32.2	34.4
기관 구내식당업	2018	-	-	-	-	-	-	-
	2019	-	-	-	-	-	-	-
출장·이동음식점업	2018	-	-	-	-	-	-	-
	2019	-	-	-	-	-	-	-
제과점업	2018	1.5	-	-	-	-	10.7	-
	2019	1.6	-	-	-	-	9.4	-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018	43.1	31.8	46.6	52.2	33.5	42.3	55.1
	2019	55.2	34.6	56.8	76.9	90.9	56.2	56.4
치킨전문점	2018	45.5	51.3	54.4	29.1	37.2	26.8	60.2
	2019	57.4	73.3	72.5	33.7	44.4	55.9	38.5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2018	6.4	-	7.7	2.3	14.1	8.6	5.5
	2019	7.3	5.1	7.2	1.1	21.8	4.7	7.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018	1.7	-	-	-	2.0	9.0	10.5
	2019	10.0	9.1	-	-	10.6	29.1	8.6
주점업	2018	2.2	3.4	1.2	-	-	-	8.7
	2019	2.0	1.9	1.4	-	-	2.3	5.9
비알코올 음료점업	2018	2.5	1.5	3.3	-	-	7.2	3.0
	2019	6.6	1.1	7.4	5.5	7.5	16.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이동음식점업, 제과점업 분야에서는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 중 한식업체가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과 2019년이 유사한 수준이나 지역별로는 차

〈표 3〉 외식업체 업종별·지역별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비중

(단위: %)

		전체	서울	경인권	충청권	호남 제주권	동남권	강원 경북권
한식	2018	3.6	1.1	3.5	3.9	-	9.4	2.5
	2019	8.0	5.3	10.3	-	10.7	10.6	3.7
중식	2018	8.3	2.4	3.1	12.7	10.7	16.6	-
	2019	18.9	8.6	10.4	18.5	31.5	43.0	-
일식	2018	2.9	-	3.6	14.1	5.4	-	-
	2019	13.0	-	15.4	66.2	11.2	10.2	10.3
서양식	2018	5.8	3.5	2.8	11.0	15.4	16.7	-
	2019	8.6	4.5	24.7	16.1	0.8	7.2	14.0
기타 외국식	2018	3.2	2.9	-	13.2	-	-	19.9
	2019	5.2	2.6	-	6.0	-	16.1	34.4
기관 구내식당업	2018	-	-	-	-	-	-	-
	2019	-	-	-	-	-	-	-
출장·이동음식점업	2018	1.5	-	2.9	-	10.0	-	-
	2019	-	-	-	-	-	-	-
제과점업	2018	1.9	-	-	-	-	13.7	-
	2019	2.8	-	-	-	-	16.0	-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018	38.2	22.3	32.6	47.5	32.6	65.2	36.0
	2019	49.4	23.4	49.0	70.2	55.6	71.5	46.6
치킨전문점	2018	31.8	16.8	22.7	33.2	37.1	32.7	52.3
	2019	49.2	60.7	41.9	19.0	71.8	57.1	29.7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2018	4.7	-	2.2	14.1	7.3	8.6	5.5
	2019	6.9	5.1	5.0	1.1	17.7	8.5	7.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018	0.7	-	-	-	2.0	4.5	-
	2019	6.4	9.1	-	-	10.6	14.6	-
주점업	2018	1.9	1.5	-	-	-	3.4	6.1
	2019	1.8	0.5	1.7	-	-	4.1	3.8
비알코올 음료점업	2018	1.3	-	1.7	-	-	4.0	3.0
	2019	4.3	1.1	6.0	5.5	1.7	15.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각 연도 원자료.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구체적으로 경인권과 호남제주권에서는 2019년에 비중이 크게

2) 2018년 기준, 각 지역별 주문중개업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한식업체의 비중은 다음과 같다. 전국(32.0%), 서

증가한 반면, 충청권과 동남권, 강원경북권에서는 2년 사이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문중개업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식업체 중 치킨전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는 강원경북권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2019년에는 서울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치킨전문점의 비중은 감소했는데, 서울과 동남권에서는 비중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각 지역의 업종별 주문중개업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업체의 분포(2019년 기준)

(단위: %)

	전체	서울	경인권	충청권	호남 제주권	동남권	강원 경북권
한식	32.3	25.4	35.8	2.3	40.1	37.6	23.6
중식	10.6	19.6	4.4	25.6	8.3	9.6	7.1
일식	2.2	-	3.0	8.8	0.9	1.1	6.3
서양식	1.7	2.8	2.2	2.3	1.1	1.0	1.7
기타 외국식	0.3	0.4	0.4	0.3	-	0.2	1.5
기관 구내식당업	-	-	-	-	-	-	-
출장·이동음식점업	-	-	-	-	-	-	-
제과점업	0.5	-	-	-	-	1.8	-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3	10.7	12.5	31.2	7.3	11.4	15.1
치킨전문점	26.2	32.0	29.9	21.8	21.3	23.7	25.5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3.9	3.6	4.2	0.5	6.5	2.8	4.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0.8	1.6	-	-	0.4	1.3	1.2
주점업	3.2	3.0	2.4	-	-	3.6	13.5
비알코올 음료점업	5.9	1.0	5.2	7.3	14.3	5.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2019년 원자료.

울(28.0%), 경인권(26.3%), 충청권(27.5%), 호남제주권(8.8%), 동남권(47.6%), 강원경북권(33.4%). 자세한 내용은 김영아 외(2020) 참조.

3) 2018년 기준, 각 지역별 주문중개업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치킨전문점의 비중은 다음과 같다. 전국(28.9%), 서울(22.3%), 경인권(37.8%), 충청권(27.8%), 호남제주권(33.5%), 동남권(14.1%), 강원경북권(38.1%). 자세한 내용은 김영아 외(2020) 참조.

주문중개업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외식업체들의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표 5 참조), 전반적으로 주문중개업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업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배달이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이 구분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주문중개업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업체 중에서 한식업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비중은 주문중개업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업체들 사이에서의 비중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주문중개업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업체 중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치킨전문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중식업 등의 비중이 주문중개업 및 배달대행 서비스 비(非)이용 업체 중에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는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문중개업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여부별 업종 분

〈표 5〉 각 지역의 업종별 주문중개업 및 배달대행 서비스 비(非)이용 업체의 분포(2019년 기준)

(단위: %)

	전 체	서울	경인권	충청권	호남 제주권	동남권	강원 경북권
한식	46.8	42.5	46.5	40.7	48.9	51.2	49.7
중식	2.6	2.8	2.2	3.8	2.5	2.0	2.9
일식	1.6	1.8	1.8	0.5	1.1	2.3	1.4
서양식	1.7	4.2	0.7	1.4	0.9	1.3	1.0
기타 외국식	0.6	1.5	0.6	0.6	0.2	0.1	0.3
기관 구내식당업	1.9	2.1	2.6	1.4	0.4	2.0	2.1
출장·이동음식점업	0.1	0.1	0.1	0.2	-	-	0.1
제과점업	2.7	3.9	3.4	3.2	1.3	2.3	1.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1	2.3	1.2	0.6	0.1	0.7	1.1
치킨전문점	2.4	1.4	1.7	5.1	1.3	3.8	3.6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6.4	7.6	8.1	4.6	2.9	7.1	5.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1.1	1.9	0.9	1.3	0.5	0.8	1.2
주점업	19.6	17.7	20.7	22.0	18.2	19.8	21.1
비알코올 음료점업	11.4	10.2	9.6	14.7	21.8	6.8	8.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2019년 원자료.

포를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2019년 기준). 여기서 상업지역은 유흥상업지, 일반상업지, 재래시장을 포함한다.⁴⁾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상업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업종 분포가 상당히 상이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식업종의 업체 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서비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지만, 비(非)이용 업체에서의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업체 중에서는 치킨전문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중식업 등의 업체 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비(非)이용 업체 중에서는 해당 업종

〈표 6〉 각 지역 내 상업지역의 업종별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업체와 비(非)이용 업체의 분포

(단위: %)

	음식점업 업종	전국	서울	경인권	충청권	호남 제주권	동남권	강원 경북권
주문중개앱/ 배달대행 이용	한식	32.5	30.6	40.2	2.8	43.6	28.9	27.5
	중식	10.0	12.3	7.8	24.4	9.0	7.0	9.9
	일식	1.9	-	3.7	6.9	0.6	-	5.8
	서양식	1.4	0.1	1.4	2.7	1.1	1.7	2.3
	기타 외국식	0.3	0.7	0.9	-	-	0.3	-
	제과점업	0.5	-	-	-	-	1.8	-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14.7	13.0	28.6	5.9	13.4	6.4
	치킨전문점	28.7	29.5	30.9	25.5	19.7	37.3	23.5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3.4	7.2	-	0.5	4.1	2.9	6.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0.4	-	-	-	0.4	1.1	-
주문중개앱/ 배달대행 비이용	한식	45.7	39.1	43.3	33.2	48.9	53.6	47.7
	중식	2.4	3.7	2.0	4.0	2.4	1.5	2.3
	일식	1.7	1.4	2.4	0.8	1.0	2.2	1.6
	서양식	1.6	5.7	0.7	1.2	0.9	0.8	0.9
	기타 외국식	0.6	2.0	0.7	0.8	0.1	-	0.3
	제과점업	2.3	4.4	2.7	3.9	1.0	1.7	1.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0.9	2.3	1.4	0.5	0.1	0.5	1.0
	치킨전문점	2.6	1.6	1.5	6.0	1.3	3.6	4.6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2	4.4	6.3	3.8	2.2	7.2	6.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1.1	2.4	1.1	0.9	0.3	1.2	0.8

주: 상업지역에는 유흥상업지, 일반상업지, 재래시장이 포함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2019년 원자료.

4)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자료에서는 외식업체가 위치한 상권을 다음과 같이 9개로 구분하고 있다. ① 고밀도주거지, ② 저밀도주거지, ③ 대학 및 학원가, ④ 역세권, ⑤ 오피스, ⑥ 유흥상업지, ⑦ 일반상업지, ⑧ 재래시장, ⑨ 기타.

의 업체 수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종에서는 대부분 배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업지역의 업종 분포는 지역별로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업체에서의 업종 분포가 지역별로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충청권에서는 한식보다 중식 업체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남권에서는 치킨전문점의 업체 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맺음말

본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외식업체가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를 지역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 단위에서 외식업체가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턴과 지역별 차이를 함께 살펴보았다.

외식업 분야의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식업체 중 11.2%가 주문중개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 외식업체 중에서는 9.4%가 주문중개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의 주문중개앱 이용 비중이 높고 한식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주문중개앱 이용 비중은 13.1%로 나타났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치킨전문점과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의 주문중개앱 이용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남권과 강원경북권의 주문중개앱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에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격차는 지역별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식의 경우 2018년 대비 2019년에 주문중개앱 사용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호남제주권과 동남권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충청권과 강원경북권에서는 그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주문중개앱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치킨전문점이고, 서울과 경인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북권에서는 오히려 주문중개앱 이용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의 경우에도 주문중개앱 서비스 이용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치킨전문점과는 달리 충청권 및 호남제주권에서의 이용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2018년 대비 증가 정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률은 주문중개앱 활용 비중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별로도 그 특징이 확연히 나타났다. 서울 지역은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 비중이 2018년 1.9%에서 2019년 7.0% 수준으로 무려 5.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인권 및 호

남제주권, 강원경북권 등에서도 큰 폭의 비중 증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충청권 및 동남권에서는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업체 비중 증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배달종사자들의 노동시장 여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외식업체의 업종 분포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달이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 중 한식업체가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과 2019년이 유사한 수준이나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바, 경인권과 호남 제주권은 크게 증가한 반면, 충청권과 동남권, 강원경북권에서는 2년 사이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식업체 중 치킨전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는 강원경북권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2019년에는 서울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치킨전문점의 비중은 감소했는데, 서울과 동남권에서는 비중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상업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업종 분포가 상이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업체 중에서는 치킨전문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중식업 등의 업체 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비(非)이용 업체 중에서는 해당 업종의 업체 수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종에서 대부분 배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업지역의 업종 분포는 지역별로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업체에서의 업종 분포가 지역별로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청권에서는 한식보다 중식 업체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동남권에서는 치킨전문점의 업체 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대 후반 짧은 기간 동안에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배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의 비중이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최근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용 현황 변화 등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턴이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충청권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중식업체의 서비스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외식업종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중개앱 및 배

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와 이용하지 않는 업체 사이의 업종 분포는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 분포가 지역별로 상이하고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업체 사이에서도 지역별로 업종 분포가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산업구조가 다르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외식 업종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 또는 규제 등을 마련할 때, 이러한 산업별,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더 나아가, 최근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배달원 등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명확한 제도가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고용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의 이용 현황이 지역별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배달원의 고용보호와 관련해서도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정책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KLI**

[참고문헌]

- 권우현 · 박철성 · 조동훈 · 방글(2013), 『자영업의 고용구조와 인력수요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김영아 · 고영우 · 방도형(2020), 『배달앱 사용 확산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음식 서비스업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김영아 · 이승호(2019),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3), pp.149~179.